

이수화학, 이수유화 흡수합병

이수화학(대표 강인구)은 자회사인 이수유화를 소규모 합병방식으로 흡수합병했다고 8월26일 공시했다.

이수화학은 “경영효율성 증대, 기존사업 사이의 시너지효과 극대화,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”고 설명했다.

합병비율은 1대0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2013/08/26>